

# 전남 지난해 혼인 건수 또 최저...광주는 5000건대 회복

### 각각 6157쌍·5169쌍 결혼...1000명당 혼인건수 전국 평균 미달 초혼연령 남·여 모두 상승...이혼 커플, 광주는 늘고 전남은 줄어

지난해 전남지역 결혼 건수가 최저치를 갱신했다. 비싼 집값과 청년 유출, 취업난과 결혼 기피 현상까지 겹치면서 또다시 바닥을 찍었다. 매년 약 5000건씩 감소하던 광주는 3년 만에 5000건대로 회복했지만, 인구 1000명당 혼인 건수를 말하는 조(粗)혼인율은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광주와 전남의 초혼 연령도 점점 높아지면서 전남의 경우 남성은 34세를 넘어섰다.

◇광주 5169쌍·전남 6157쌍, 지난해 결혼=1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결혼한 광주지역 부부는 5169쌍이었다. 이는 전년(4902쌍) 대비 267쌍 늘어난 수치로 지난 2020년(5560쌍) 이후 3년 만에 혼인건수 5000건대를 회복했다. 반면, 지난해 전남에서 결혼한 부부는 6157쌍으로 전년(6181쌍)보다 24쌍 감소하며 또다시 역대 최저치를 갱신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지역 커플 혼인건수는 지난 2013년(9995쌍) 이후 10년째 지속적으로 하락하며 매년 역대 최저치를 갈아치우고 있다. 특히 지난 2020년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혼인건수가 전년 대비 1000건 이상 대폭 감소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6000건대를 기록했으나, 이마저도 빠르게 하락하고 있어 곧 6000건 선도 붕괴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광주·전남의 조혼인율은 전국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광주시의 조혼인율은 전년보다 0.2%p 오른 3.6%였고, 전남도는 전년과 같은 3.4%를 유지했지만 전국 평균인 3.8%에는 미치지 못했다.

◇광주·전남 남성 초혼 연령 높아=지난해 광주·전남지역에 거주하는 남성들의 초혼연령 역시 지속적으로 상승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광주의 초혼 남성 연령은 33.77세로 전년(33.72세)보다 0.05세 올랐고, 여성은 전년에 견줘 0.16세 상승한 31.26세였다. 전남의 경우 남성 초혼 연령이 매년 상승을 거듭해 지난해 기준 34.03세로 처음으로 34세를 넘겼고, 여성은 전년 대비 0.02세 올라 30.83세에 첫 결혼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의 경우 재혼연령 역시 크게 늘었는데, 지난 2018년(47.76세) 이후 매년 연령대가 올라 지난 2020년 처음으로 50세를 돌파한 뒤 지난해는

50.66세까지 치솟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혼 커플, 광주는 늘고 전남은 줄어=지난해 광주지역 이혼건수는 2399건으로 전년(2360건)보다 39건(1.7%) 늘었다. 전남지역의 지난해 이혼 건수는 전년(3565건)보다 1.3% 감소한 3517건으로 조사됐다. 특히 광주시에서는 전체 이혼 중 외국인과 이혼비율이 타 도시보다 비교적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년 대비 외국인과 이혼건수 증감율을 보면 세종(42.1%)에 이어 광주(38.0%)가 전국에서 두번째로 높았고, 전북(26.1%), 대전(21.0%), 대구(11.5%) 등이 뒤를 이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박내춘 NH농협은행 광주본부장이 신입행원들과 기념촬영을 갖고 있다.



정재현 NH농협은행 전남본부장이 신입행원들과 기념촬영을 갖고 있다.

## NH농협은행 광주·전남본부 신입행원 38명 임명장 교부 환영식

### "젊은 열정 새로운 활력 되어주길"

NH농협은행 광주본부와 전남본부가 신입 행원에게 임명장을 교부하고 환영의 시간을 가졌다. NH농협은행 광주본부는 지난 18일 2024년 상반기 채용 지역인재 16명의 신규직원에 대한 임명장 교부식을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임용장 교부식에는 박내춘 본부장과 지점장 등

20여명이 참석해 농협은행의 새 가족이 된 신규 직원들을 환영했다. 광주본부는 농협은행 상반기 공개채용 530명 규모 중 지역인재 16명을 채용했다. 이번에 채용된 신규 직원들은 광주지역 소재 고교·대학교 졸업생으로 영업점에 배치될 예정이다. 박내춘 본부장은 "우리지역 인재를 우선 채용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대한민국 농협' 구현에 앞장서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NH농협은행 전남본부도 같은 날 전남본부 대강당에서 신입행원 22명에게 임명장을 교부했다. 전남본부도 마찬가지로 전남에 거주하고 있거나 전남소재의 학교를 졸업한 인재들을 채용했으며, 신입행원들은 지난달 28일 최종 합격 후 구례 교육원에서 2주간 연수를 받았다.

신입행원들은 관내 영업점에 배치되며, 선배직원과 1대 1 직무 멘토링을 통해 다양한 업무경험과 노하우를 전수받아 은행원으로서의 역할을 키워갈 예정이다. 정재현 본부장은 "신규직원의 열정과 소통능력이 부인 사무소뿐만 아니라 NH농협은행 전체의 새로운 활력이 되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정부가 비아파트 사들여 무주택자에 전세 놓는다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계획

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빌라 등 비(非)아파트를 사들여 시세의 90% 수준 보증금으로 전세를 내놓는다. 정부는 내년까지 2년간 비아파트 10만가구(전세 2만5000가구·월세 7만5000가구)를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21번째 민생토론회에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계획을 밝혔다. 먼저 소득·자산에 관계없이 무주택자라면 신청할 수 있는 '든든전세주택'을 새로 공급한다. LH가 신축 다세대·연립·도시형생활주택 등을 매입한 뒤 주변 전세값의 90% 수준에 임대한다. 출산가구 지원을 위해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와 다자녀 가구에는 가점을 부여한다. 이들 가구에 든든전세주택을 우선 공급한 뒤 잔여분을 추천제로 공급한다. 자녀가 있는 가구가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매입 평형은 60~85㎡로 정했다. 거주 기간은 최대 8년(4+4년)이다. HUG는 기존에 지어진 비아파트를 사들여 시세의 90% 가격으로 전세 임대한다. HUG 든든전세주택도 소득·자산 기준을 두지 않는다. 무주택자에게 추천으로 공급한다. 든든전세주택 공급 물량은 2년간 LH 1만5000가구, HUG 1만가구다. 재원은 주택도시보증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해 마련하며 올해 1조원가량이다. 신축 매입임대주택 공급 물량은 확대한다. 매입임대주택은 LH가 신축 주택을 사들인 뒤 무주택 저소득층, 청년, 신혼부부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월세를 내주는 사업이다. 매입임대주택 공급 물량은 올해 3만5000가구, 내년 4만가구다. 청년·서민층 전월세 수요를 조기에 흡수하기 위해 올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물량은 작년보다 1만가구 늘린 8만9000가구로 정했다. 아울러 청년 월세지원 사업의 지원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고, 보증금·월세금액 요건은 폐지한다. 또 신생아 특별공급, 우선공급에 당첨됐다면 입주 시점에 자녀 연령이 2세를 넘더라도 신생아 특별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삼성전자 '비스포크 AI 콤보' 흥행 돌풍...광주 생산라인 풀가동

### 세탁·건조 기능 갖춘 세탁기 출시 12일만에 3000대 판매

삼성전자의 국내 '백색가전' 생산 기지인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이 '비스포크 AI 콤보' 흥행에 힘입어 바빠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19일 '올 인원' 세탁·건조기 '비스포크 AI 콤보'가 소비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어 생산기지인 삼성전자 광주사업장 생산라인이 풀(full) 가동 중이라고 밝혔다. 비스포크 AI 콤보는 출시 3일 만에 판매량 1000대, 12일 만에 3000대를 돌파하는 등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삼성전자는 국내 소비자의 수요에 맞춰 비스포크 AI 콤보 생산라인을 차질 없이 가동해, 순조로운 배송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소비자들의 큰 관심을 끌고 있는 비스포크 AI 콤보는 세탁기능과 건조기능이 합해진 가전제품으로, 세탁 후 건조를 위해 세탁물을 옮길 필요 없이 세탁과 건조가 한 번에 가능하다. 두 기능이 합해지면서 세탁기와 건조기를 각각 설치할 때보다 공간을 약 40% 줄일 수 있다. 비스포크 AI 콤보 구매자들은 "두 기능을 한 기계에서 작동 시킬 수 있어 편리하다", "공간 활용성 면에서 탁월하다", "조각 화면이 크고 사용하기 쉽다"는 등의 만족감을 나타냈다. 비스포크 AI 콤보는 일체형 제품임에도 고효율



19일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에서 직원들이 세탁과 건조 기능이 합해진 '비스포크 AI 콤보'를 조립하고 있다. <삼성전자 제공>

인버터 히트펌프 기반으로 단돈 건조기 수준의 건조 성능을 구현해, 저온 제습 기술로 옷감 손상 걱정 없이 만족스러운 건조 기능을 제공한다. 세탁물 3kg을 세탁부터 건조까지 99분 만에 끝마치며, 세탁용량 25kg·건조용량 15kg으로 김사이즈 이불 빨래까지 가능한 게 특징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삼성전자 관계자는 "비스포크 AI 콤보의 흥행과 더불어 올해 비스포크 제트 AI, 비스포크 제트 봇 AI 등 AI 기능이 강화된 제품들을 선보일 계획"이라며 "AI가전-삼성"이라는 공식을 공고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 정부, 기업 '자사주 소각·배당' 늘리면 법인세 줄여준다

### 최상목, 자본시장 선진화 간담회 주주엔 배당소득 분리과세 검토

기업의 자사주 소각 또는 주주배당 '증가분'에 대해 일정 부분 법인세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배당받은 주주에 대해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또는 세액공제 방안이 검토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자본시장 선진화 간담회'를 열고 주주환원과 관련한 세

제지원 방침을 밝혔다. 한국 증시를 한단계 도약시키겠다는 '밸류업' 정책의 일환이다. 지난달 26일 금융위원회 발표에서 세제 혜택 조치가 빠졌다는 지적이 나오자, 세제당국의 의지를 한단계 구체화하겠다는 취지로도 보인다. 다만, 세제 지원의 세부적인 수치 등은 제시하지 않았다. 모두 법개정 사항으로, 추후 세법개정안 마련을 거쳐 국회의 문턱을 통과해야 한다. 밸류업 가이드라인도 5월 초 확정한다는 입장이다. 우선 기업의 주주환원에는 법인세 완화 조치를

에고했다. 자사주를 소각하거나 배당을 늘리는 기업에 대해서는 일정 범위 이내에서 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겠다는 취지다. 자사주 소각은 회사가 취득해 보유한 자사 주식을 소각하는 것으로 유통 주식 수를 줄여 주가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 주주에 대해서도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배당 확대에 따라 주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더 돌아갈 수 있도록 배당 확대 기업 주주에 대해 높은 배당소득세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 광주상의 FTA 실무교육 원산지증명서 발급 등 강의

광주FTA통상진흥센터는 오는 28일 '초보자를 위한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실무' 교육을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광주상공회의소 2강의실에서 열리는 이번 교육은 원산지증명서 발급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수출 기업들을 위해 마련됐다. 제이에스 관세법인의 서형석 관세사가 강사로 나서 ▲FTA 개념 및 활용절차 ▲원산지 결정기준 분야별 특례 ▲FTA 원산지증명서 작성 실무 ▲원산지 인증수출자 신청 절차 등을 중심으로 7시간 동안 교육을 실시한다. 해당 교육 수료 시 기업은 인증수출자 점수 12점을 인정받게 되며, 수강료는 무료다. 이후형 광주FTA통상진흥센터장은 "다양한 형태의 무역장벽이 증가하는 등 어려운 수출환경 속에서도 FTA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지역 기업들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각종 교육과 컨설팅 등 지원사업들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상공회의소가 운영 중인 광주FTA통상진흥센터는 지역 기업의 수출경쟁력 확보를 통한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하고자 FTA 활용 교육은 물론 전문가 상담, 컨설팅, 카탈로그 제작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FTA 지원 사업과 교육문의는 광주상의 홈페이지(<http://www.gjcci.or.kr>)를 참고하거나 광주FTA통상진흥센터(062-350-5862/5)로 하면 된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6월까지 금융경제 강좌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는 2024년 상반기 '한국은행 금융경제강좌'로 총 4회에 걸쳐 강연을 개최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강연은 광주시 서구 치평동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1층 강당에서 오는 6월까지 매월 1회 개최되며, 강연에 관심있는 일반인은 누구나 사전 신청 없이 무료로 참가 가능하다. 우선 오는 25일 오후 3시 '초거대 생성 AI가 만드는 초격차 시대'를 주제로 김종민 광주과학기술원(GIST) AI 대학원 원장이 첫 강연을 선보인다. 이어 4월 22일 오후 3시 유종민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가 '탄소배출권거래제 등 기후변화 정책의 이해' 강연에 나선다. 오는 5월 13일 오후 3시에는 '핀테크 규제와 실무', '블록체인과 코인, 누가 돈을 버는가'의 저자인 예자선 변호사가 '가상자산 투자와 정책-비즈니스 모델로 이해하기'에 대해 강연한다. 마지막으로 6월 13일 오후 3시 '한국 재정의 주요 이슈와 미래'에 대해 김상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가 강연을 펼친다. 특히 오는 25일 개최되는 첫 강연은 한국은행 유튜브 채널([youtube.com/@theBankofKorea](https://www.youtube.com/@theBankofKorea))에서 실시간으로 강연을 송출할 예정이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관계자는 "올해 개최되는 금융경제강좌가 경제·사회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한 지역민들의 이해도 및 흥미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656.17(-29.67)
↓ 코스닥	891.91(-2.57)
↑ 금리(국고채 3년)	3.383(+0.035)
↑ 환율(USD)	1339.80(+6.10)